

현대 문명 이미지 넣은 만다라의 진화

김태연의 'naver say goodbye'

“현재에서 과거를 상상하고 동서고금이 통한 것을 느끼는 순간 기쁨을 느낀다. 우주와의 만남을 한순간이라도 찾아 반갑기까지 하다. 물론 새로운 것이 좋고 신기하지만 너무 빨라 멀미가 나기도 한다. 속도의 시대를 살며 과거를 기웃거리다 보면 어지럼증이 가신다. 나는 최고(最古) 신상은 최고(最高)라고 말한다”

과거와 현대의 만남은 때로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아이콘, 뽀로로와 친구들, 아이스크림 상표, 교통표지판이 만다라로 태어났다. 우리가 사는 형형색색의 세상을 화폭에 펼치는 김태연 작가의 'naver say goodbye'가 종로구 화동 갤러리 빔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행가, 개그 프로그램, 또 인터넷 공간에서도 무위자연의 도(道)를 되새기며 역행이 아닌 또 다른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또한 종교적 시각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는 통찰도 담아낸다. 하지만 무겁거나 어렵지 않다. 작품 곳곳에 관객의 시각적 유희를 불러일으킬 요소를 등장시켜 현대인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내 작품에 등장하는 부처와 보살들은 현대의 기호들과 함께 있거나 현대인들의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조된 흙만 위에 그림을 그려 넣고 오래보아도 록 마무리한다. 고대 벽화 속에서 현대문명이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다. 이처럼 과거의 신성한 그림을 통해 고대문명을 돌아보고 현재를 관찰하고 상상해보는 작업은 나에게 즐거움 그 자체다”

작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현대문명을 두리번거리다가 뒤를 돌아본다. 그곳에

는 여전히 아름다운 고대의 이미지들이 남아 영원한 것에 대한 유무(有無)를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단순한 형상들을 반복해, 장식적 문양을 묘사하고 익숙한 표정과 기호들을 그리다보면 작가는 어느덧 무아지경을 경험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 나도 모르게 젖어든 습관에서 거리를 두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작가의 사유와 통찰은 'What am I doing'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왜 이러는 걸까요?' 'for Nothing' 'icon' 'MS' '천불도' 등의 작품을 통해 엿볼 수

뽀로로 등 만다라로 표현

휴 작업으로 고전 느낌 가미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사유와 성찰의 시간 주고자

있다. '천불도'는 다양한 세계인들의 모습과 표정을 담아냈고 'What am I doing'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현대인들을 묘사했다.

“요즘 사람들은 마주 앉아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등을 돌리고 셀카를 찍는다. 요즘 흔히 보게 되는 이런 광경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며 즉각적인 현대인들의 단면을 엿보듯해 불편하다. 하지만 이내 이들 모두를 다시 있는 그대로 보기로 한다. 그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한다”

'MS'는 우리가 사용하는 MS Google NAVER 등 사아비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



김태연 작가의 'naver say goodbye' 전시 종로구 화동 갤러리 빔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만다라에 현대적 소재를 접목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태연의 '천불도'

는 이미지를 만다라 안에 넣었다. 김 씨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작품을 만다라라고 한다면 나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 작업을 하며 내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그 안에 적용해 보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작가는 일반적으로 불화를 모티브 삼아 문명의 이기에 짓눌린 현대인들의 풍경을 고전적 시선으로 담아낸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지만 더 여유로워지기보다는 그 속도에 제압당하고만 있다. 그렇게 습관처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는 말한다. 한 번쯤 만다라 속 세상에서 멈추어 나를 들여다보라

고. 김태연 작가는 덕성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 수학했다. 개인적으로는 '2008 이 가벼운 날들의 생' '2007 하늘이다' '2006 色即示空 空即示色' 등을 개최했다.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임선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선전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02)723-857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재 보존 중요성 깨닫자”

‘되찾은 문화재...展’ 개막식

불교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불교문화재 다시 찾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展’ 개막식이 10월 17일 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범안 스님, 정세균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그동안 수난의 역사를 겪었던 우리 불교 문화재가 어떻게 바뀐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준비된 전시다. 또한 현재 우리 문화유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 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 불교문화재는 그동안 시련과 수난의 역사를 걸어왔다. 그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자승 스님의 작품 관람 모습.

고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치사했다.

이날 참석 내빈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우리 전시 문화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는 12월 9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며 불교문화재 131건 140점(국보 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 I 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 > II 되찾은 문화재 이야기 > III 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 > IV 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로 나누어 관람객을 찾는다.

정혜숙 기자

문화재기능인 작품 한자리에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 개최

10월 18~22일, 서울미술관서

송래문 등 문화재 보수복원의 일선에 서 있는 문화재기능인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이재순)는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10월 18-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오천년의 혼으로 이어온 장인들’이란 주제로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목공·석공·목조각·석조각·화공·칠공 등 13개 분야에서 문화재 보수 복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기량을 가진 124명의 문화재기능인이 130여 점을 전시했다.

전시 개막식은 18일 열렸으며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출품작 중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등 우수작품 입선자 다수를 선정해 시상하며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백만 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기능인들의 현장시연도 전시기간 동안 마련됐다. 장인들의 지도하에 스국보급 포 짜 맞추기 △전통문살 만들기 △단청문양 채색하기 등이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매년 문화재기능교육, 직종별문화재기능교육, 문화재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술교양인(문화재기능의 맥)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



사진은 출품작인 허길량의 '관음반가사유상'

동을 하고 있다.

이재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은 “참여 작가들은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작업한 경험을 살려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작품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목조, 석조 등의 문화재를 재현함으로써 전통기술의 전승과 우리 전통기공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672-8803

이어나 기자

진영으로 보는 해인사의 역사

역대 고승 진영전 ‘해인삼매’

해인사 역대 고승 진영전 ‘해인삼매’가 11월 25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해인사는 창건부터 현재까지 혼신을 다해 해인사를 세우고 가꾸고 빛내면서 수행정진한 스님의 진영 142점을 담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창건주 순응 스님부터 울 초 입적한 전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까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층 기획전시실에는 해인사 창건주, 중창주, 대공덕주 진영을 전시하며, 2층 특별 전시실에는 해인사 근세 고승 율성 스님부터 최근 지관 스님까지 12점의

진영(혹은 사진) 실사본을 전시한다.

또 해인사성보박물관은 역대 고승 진영을 모은 도록도 출간했다. 도록에는 해인사 소장 진영 90점을 비롯해 흥제암 소장 진영 17점, 원당암 소장 진영 11점, 백련암

11월 25일까지 성보박물관서

지관 스님 등 진영 142점 전시

소장 진영 11점, 국일암 소장 진영 13점 등 총 142점의 진영이 수록됐다.

해인사는 “현재 해인사에 봉안 중인 142점의 진영 중 해인사 창건 스님과 초창기

해인사를 중창한 스님과 주석하며 정진했던 몇 분의 고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차례 화재로 해인사가 중건 중수를 거듭할 때 공력으로 모셔진 진영들과 근세에 모셔진 진영들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진영 대다수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스님들 것으로 범통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진영, 사찰의 역사와 정통성을 보여주는 진영, 사찰의 중창을 이룬 대공덕주 스님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한편, 해인사는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년) 순응 이경 스님이 가야산 서남쪽 길상지(현재 해인사)에서 정진할 때 백악이 무효했던 애장왕 왕후의 등창병을 고쳐 준 인연으로 창건됐다. 이후 조선 숙종 21년인 1695년부터 조선 고종 8년 1871년까지 176년 7차례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때마다 중건 중수를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정혜숙 기자



‘해인삼매(海印三昧)’ 특별전에 전시되는 해인사 창건주 순응스님 진영.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배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불(희담석 60% + 제올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온 테프론 무지개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2인용: 100cm x 200cm
1인용: 150cm x 200c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x450mm)
- * 오래 앉아 있어도 팔이 저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아래 결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육안 육근질환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행승
- 컴퓨터를 많이 하는 셀러리언

정가 66,000원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900원 - 월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속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배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돌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빛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깨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8-48 금곡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유구

소원성취 인등 및 시리함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B 인지구 26E

A/S 불룩 전선 10년
5년

불해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형

LED전구, DC 3V 백색, 노랑, 빨강

▶ 빔형, 탐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